

# 감상교육 방법론의 실제

focused on 형식분석(색채)

## Contents

1. 주제의 역사적 측면과 관련된 심화과제
2. 같은 작가의 미술작품, 다른 작가의 비슷한 미술작품의 예시 및 분석
3. 다른 분야에서 이러한 해석의 예시
4. 초등학교 미술 수업에서의 응용 방안
5. 초등 수업에서 타 교과와의 연계 수업 /통합 수업 방안
6. 초등학교에서 본 수업의 의의
7. 미술 제작활동
8. 과제 후의 감상, 본 수업의 의의

학번 20091100  
학과 00교육과  
이름 000

## ※ 제시 작품과 설명

까마귀 나는 밀밭



Les Champs de ble aux corbeaux(까마귀 나는 밀밭)  
빈센트 반 고흐, 1890년  
캔버스에 유화, 50.5 × 103.0 cm  
암스테르담 Van Gogh Museum

네덜란드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 고흐의 1890년 작품으로, 암스테르담의 반고흐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그림은 1890년 7월 생의 마지막 주에 그려져 흔히 고흐의 마지막 작품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까마귀와 곧 폭풍우가 들이닥칠 듯한 검푸른 하늘 등의 드라마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이었다. 고흐의 작품 중 몇 안 되는 대형 작품으로, 고흐는 오베르에서 보낸 인생의 말기에 옆으로 긴 새로운 규격의 그림을 시도하였다.

고흐는 바람에 흔들리는 밀밭을 자주 그렸다. 이 그림에서 밀밭은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매우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고,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온통 뒤덮고 있다. 지평선 너머의 검은 하늘에는 두 무리의 흰구름이 보이고, 먼곳에서부터 그림 가운데까지 까마귀떼가 날아가고 있다. 또 세 갈래로 구불구불한 길이 나 있는데, 가운데 있는 길은 밀밭 사이를 가르며 지평선 쪽으로 뻗어나간다.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폭풍의 하늘에 휘감긴 밀밭의 전경을 그린 이 그림으로 자신의 슬픔과 극도의 고독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즉, 지평선이라는 드넓은 전망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사납게 일렁이는 대지, 거기에 까마귀가 활개를 치며 날아가는 불안한 화면을 통하여 인간 영혼의 고독과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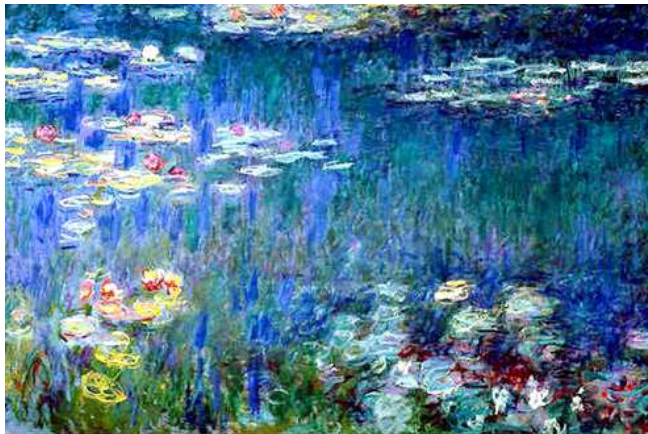
## 1. 주제의 역사적 측면과 관련된 심화 과제

요동치는 푸른 하늘과 바람에 흔들리는 노란 밀밭 위로 어두운 운명의 종말을 예고하듯 무리지어 나는 까마귀들의 울음소리가 진동합니다. 군청색 하늘과 노란색 밀밭의 극적인 색의 대비는 삶과 죽음의 막다른 경계선이 됩니다. 그 사이로 뻗은 작은 길은 고독한 영혼이 예술의 무게조차 모두 내려놓고 쓸쓸히 떠나야할 길이었는지 모릅니다. 강렬한 색채 대비하면 꼭 맨 먼저 떠오르는 반 고흐의 걸작입니다.

최화삼<화가>

회화에서 색채는 시각적 특성과 심리적 효과를 통해 화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핵심적 요소로 사용됩니다. 화가는 자신의 예술적 욕구에 의해 색을 선택하고 그 창의적 변화 또한 끝없이 전개되지만 그 결과는 체계적인 분석과 설명이 가능한 색채 시스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같은 형상이라도 색이 다르면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듯이, 색의 시각적 특성과 효과는 물론 상징성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회화 감상과 창작에 있어 중요한 과정입니다.

모네의 작품 [수련]은 빛과 색의 조화와 거친 필치를 통해 자연을 새로운 조형형식으로 표현한 걸작입니다. 사물 고유의 구체적인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색채의 시각적 특성을 극도로 활용하여 예술적 감흥을 이끌어 내려했던 시도를 담은 만년의 역작입니다. 이 작품엔 인상주의라는 근대 회화의 문을 활짝 열었던 모네의 감성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전편 색채의 기초이론에 이어 이번에는 회화 작품에서 활용된 색채의 특성에 관해 모네의 아름다운 수련을 감상하며 전개합니다.



| 클로드 모네 [수련] 연작 1917~1919년



| 클로드 모네 [화실에서 젊은 날의 자화상]

## 색의 시각적 혼합

우리가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색은 그 종류가 너무 많아 그 모든 색에 대응하는 개별 물감을 만들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가들은 한정된 색상의 물감을 혼색하여 더 많은 종류의 색을 만들고 채도나 명도를 조절하며 사용합니다. 그러나 고품질 물감의 뛰어난 색감에도 불구하고 물감은 혼합하면 할수록 탁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부시게 밝고 푸른 하늘이나 붉은 노을 혹은 햇살에 반짝이는 에머랄드색 바다의 투명함 등 다양한 풍경을 잘 표현한 그림들도 실제 자연의 색에 비하면 흐리거나 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빛의 의해 만들어지는 색과 물감의 의한 색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혼색에 의해 물감의 색이 탁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세기 화가들은 색의 시각적 혼합을 통해 색상의 선명함을 높이고 자연의 찬란한 색을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프랑스 인상주의에서 시작된 이러한 색채 사용에 관한 시도는 [신인상주의](#)의 대표작가 조르주 쇠라의 그림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쇠라는 물감의 혼색보다 시각적 혼색을 이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라색은 빨간색과 청색의 혼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때 두 색의 물감을 팔레트에서 섞지 않고 캔버스에 작은 점의 형태로 찍어 나갑니다. 이 작은 색점은 감상자의 망막에서 빨간색 점과 청색 점들이 혼합되어 보라색 면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혼합되어 나타나는 보라색은 물감의 색보다 더욱 선명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 조르주 쇠라 [그랑자트섬의 일요일 오후] 1884~1886



| [그랑자트섬의 일요일 오후] 부분

쇠라의 [그랑자트섬의 일요일 오후]는 2년에 걸친 치밀한 [점묘기법](#)으로 제작되었는데 물감의 작은 점들이 모여 만드는 시각적 혼색을 통해 밝고 영롱한 외광 표현에 중점을 둔 작품입니다. 화면에서 햇빛을 직접 받는 밝은 부분은 물론이고, 그늘진 부분도 탁하거나 어둡지 않고 점묘기법에 의해 맑게 표현되어 있어 화면 전체는 화사하고 투명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모네로부터 시작된 인상주의에서 쇠라의 신인상주의에 이르기까지 점묘기법을 통한 빛과 색의 조화에 관한 탐구는 반 고흐, 고갱 등 후기 인상주의로 이어지며 동시대와 후대의 미술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짝이는 강변의 햇살 속에서 일요일 오후의 여가를 즐기는 다양한 모습은 당시 상류사회의 여유를 느끼게 하는 풍속화를 보는 듯 합니다.



폴리치아 다 볼페도 [햇살 속의 세탁] 1894년



구스타프 클림트 [아터제 호수의 릿출베르크] 1914년

이탈리아의 화가 폴리치아 다 볼페도의 그림 [햇살 속의 세탁]은 청색조의 하늘과 노란 지면의 산뜻한 보색대비는 물론 섬세한 색점들의 어우러짐을 통해 햇살이 좋은 길을 따라 한 없이 걷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상주의 개념과는 다르지만 클림트의 작품 [아터제 호수의 릿출베르크]에서 보여지는 작은 붓 터치는 점묘기법의 효과를 나타내며 다양한 색채들이 시각적으로 혼합되는 효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여름 호숫가의 호젓한 풍경을 녹색 주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술사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조형적 이념이나 기법들은 단지 그 시대에서만 머물지 않고 시대를 초월해 계속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묘기법은 두 색을 동시에 볼 때 나타나는 혼색효과입니다. 이는 '동시대비' 이자 멀리서 보면 하나의 색으로 느껴지는 '병치혼합'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묘기법을 사용한 화가들은 자연의 빛과 색을 화면에 담는 데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점묘의 병치혼합 효과는 모자이크나 직조, 타피스트리 제작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망점을 이용한 컬러 인쇄의 제판 등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 주관적인 색상 표현이 두드러진 표현주의 그림

미술의 역사를 통해 지속되어온 사실적인 표현의 회화들과는 달리 19세기 후반 사진이 널리 보급된 이후부터 많은 진보적인 화가들은 새로운 창작의 개념으로 무장하고 급속히 그 표현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사물 고유의 형태를 변형하거나 자유롭게 색상을 선택하며 재현의 엄격한 질서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난 새로운 표현형식의 작품들이 풍성하게 등장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고유색을 벗어나 작가의 주관적인 색상 표현이 두드러진 그림들은 19세기 말 표현주의 화가들(마티스, 몽크, [블레](#), [키르히너](#) 등)의 작품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전적 색채 조화를 무시하고 격렬하고 자유분방한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야수파로 칭해지는 일군의 화가들은 대상의 전형적인 아름다움보다 불안, 고뇌 등 극도의 감정적 소용돌이와 내면의 본질적 실체를 충동적이며 상징적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했습니다.



[ 알리 마티스 [마티스 부인의 초상] 1905년



[ 프란츠 마르크 [꿈] 1912년

마티스의 그림 [마티스 부인의 초상]은 작가의 주관적 감흥에 의한 색채 선택으로 인물의 고유색을 무시하고 노란색, 녹색 등의 색채를 사용해 자유롭게 강렬한 표현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수파에 속하면서도 거친 색채보다 대담한 색채 사용으로 주목받은 마르크의 그림 [꿈]은 여인과 붉고 푸른 말의 다양한 색을 통해 비현실적이고 동화 같은 세계를 주관적 색상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 색의 다양한 대비 효과

회화 작품에 사용된 색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대비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색상, 명도, 채도의 대비는 물론이고 보색, 연변, 면적, 한난 대비들 중 하나 혹은 여러 대비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화가가 팔레트에서 선택하고 만든 색과 화면에 칠한 후의 색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화면에서는 여러가지 색들이 인접하기 때문에 다양한 대비의 효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같은 색이라도 시각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감상할 때 화면에 나타나는 모든 색 대비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림은 곧 색의 대비의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비효과는 조형의 원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 색상대비

색상대비는 인접한 색의 영향으로 색이 달라 보이는 효과를 말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색의 대비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색상환에서 가장 멀어지는 보색관계일수록 또 큰 면적에 비교되는 작은 색 면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같은 보라색이라도 군청색 위에서는 붉은 느낌이 강하고 빨강색 위에서는 더 푸른 느낌을 보이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화랑의 벽면이 모두 흰색으로 칠해진 것은 전시된 작품과의 색상대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시 벽면에 특정색이 사용되어 있다면 작품의 색과 대비되는 효과로 원래 작품의 분위기를 바꾸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액자 색깔과 형태, 크기도 작품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체 22페이지 중 6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 '전체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보기

## 감상교육 방법론의 실제-류지영교수님 기말과제

저작시기 : 2009-12

등록시기 : 2010-05-12

자료형태 : hwp, pdf

분 류 : 교육학

출 처 : <https://www.happycampus.com/report-doc/10914276/>

--- 주의 사항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